

배포일시	2019. 9. 9.(월) 09:00 (총 4매)	보도시점	2019. 9. 9.(월) 10:00
담당부서	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	담당자	과장 류상범 과장 최재천
		전화번호	064-780-6562 02-2181-0641

전 세계 온실가스 전문가들, 제주에서 최신 측정기술을 나누다

- 제주 서귀포에서 「제20차 WMO/IAEA 온실가스 전문가 회의」 열려...
- “지난 150년 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, 최근에 가장 빨라”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9월 2일(월)부터 5일(목)까지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“제20차 WMO(세계기상기구)/IAEA(국제원자력기구) 온실가스 전문가회의”를 개최했다.
- 전 세계 20개국 약 200여 명의 온실가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 등 온실가스 측정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.
 - 기존의 지상 측정방법 외에 △항공 △드론 △선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온실가스 측정 결과와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원 추적 연구 등 최신 측정 기술이 소개됐다.
 - 또한, △온실가스 측정의 정확도 향상 방안 △자료품질 관리 방법 △동위원소 분석 등 총 11개 주제, 115편의 연구결과도 발표됐다.

□ 기상청은 안면도와 제주 고산 및 울릉도·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온실가스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.

- 2018년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(우리나라 대표 감시소)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(CO₂) 평균농도는 415.2 ppm으로, 전년 대비 3 ppm이 증가했으며,
- 이는 북반구 대표 감시소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408.5 ppm(전년대비 2 ppm 증가)보다 6.7ppm 높은 수치이다.

<표 1.> 2018년 안면도, 고산, 울릉도, 마우나로아, 전지구의 CO₂ 농도 (ppm)

	안면도	고산	울릉도	마우나로아*	전지구*
2018년 평균값	415.2	414.3	412.7	408.5	407.4
2017년 대비 절대 증가값	3.0	2.5	3.0	2.0	2.4

* 전지구와 마우나로아 농도는 미국해양대기청(NOAA,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)의 발표 값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. WMO에서 발표하는 전지구 농도는 통상 10월에 발표됨.

□ 회의에 참석한 세계기상기구(WMO) 옥산나 타라소바(Oksana Tarasova) 지구대기감시과장은 “지난 15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의 증가율이 가장 큼니다.”라고 말했다.

- 또한 그녀는 “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온실가스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.”라고 당부했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회의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에 대해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, 온실가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제20차 WMO/IAEA 온실가스 전문가 회의 사진
- 2.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(마우나로아, 전 지구, 안면도)

붙임 1 제20차 WMO/IAEA 온실가스 전문가 회의 사진



| 한반도 기후변화감시망 소개(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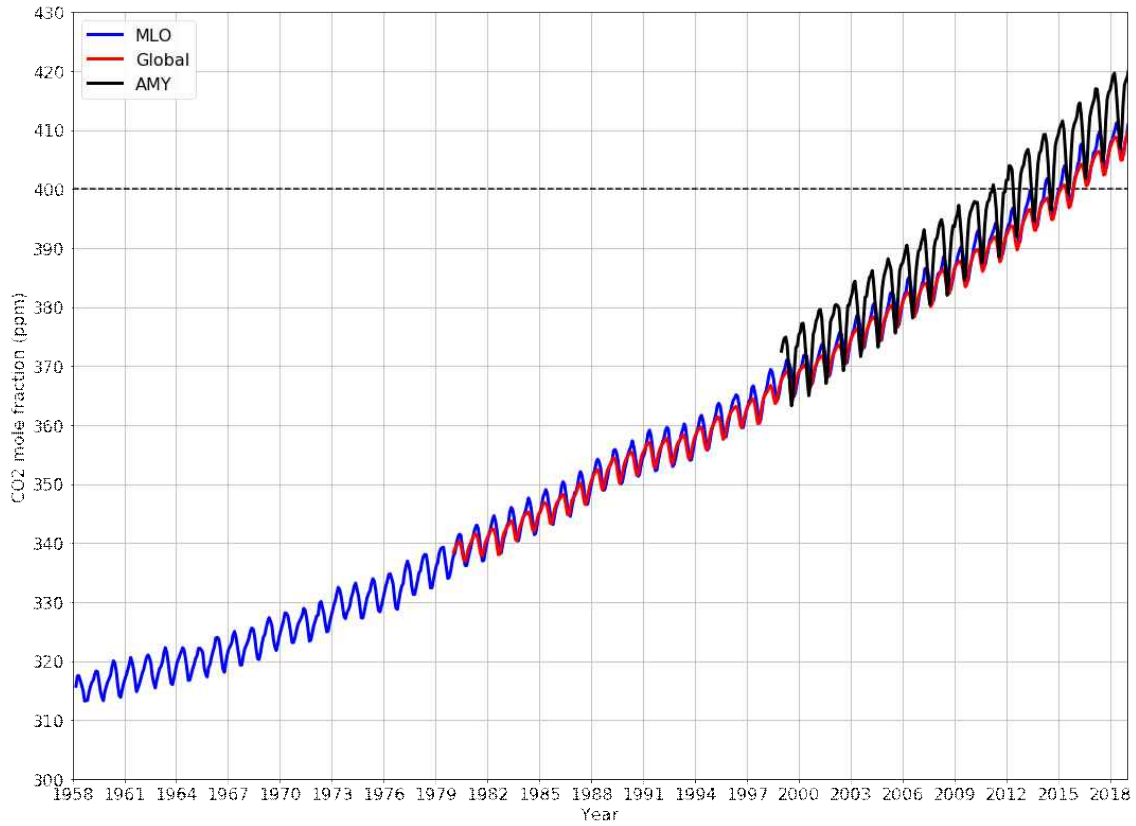


| WMO 정책 발표(옥산나 타라소바 GAW 과장) |



| 기념 사진 |

붙임 2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



| 마우나로아(1958~/파란색), 전 지구(1980~/붉은색), 안면도(1999~/검은색) |